

나의 개발 이야기

일시 : 2019년 04월 27일(토) 오후 02:00~오후 05:30

장소 :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1 (<http://naver.me/GlsQje5t>)

주제 : 개발을 어떻게 배워 나가는지, 개발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

발표 내용

- 1. 새내기 개발자는 어떻게 직군과 회사를 정하고 성장했을까 ?**
 - a. (고석진 - 트리플)
 - b. 새내기 개발자로서 개발을 시작하며 어떻게 분야를 선택했고,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했으며,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
- 2.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**
 - a. (노경모 - ODK Media)
 - b.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,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, 기술 공부 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들(영어, GlassDoor, Indeed, LinkedIn, 국문 및 영문 이력서, 독서, 블로그, 커뮤니티, 스터디 등)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, 그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합니다.
- 3. 나의 공부와 수집과 목표**
 - a. (노현석 - Naver)
 - b.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목표를 잡았는지,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를 이야기합니다.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저처럼 하지않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도 경험을 공유합니다.
- 4. 질문덕후 생존기**
 - a. (송요창 - 야놀자)
 - b. 여기 모르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? 맨몸으로 IT업계에 들어온 야매 개발자의 생존기를 시작합니다.
- 5. 늦깎이 개발자, 실전 프로젝트로 성장하다.**
 - a. (이승민 - 레이니스트 & GDE Android Korea)
 - b. 군대를 전역하고 전과하면서 23살 늦은 나이에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해에 자바의 Class도 모른채 전교생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. 근본없는 개발자로 시작하여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, 어느새 8년이 지난 저의 개발 시작기를 들려드립니다.
- 6. 아직도 나는 개발자가 맞는가?**
 - a. (이찬희 - 레이니스트)
 - b. 개발자가 되기까지 여러가지 고민들,
 - c. 그리고 개발자가 되서도 느끼는 여러 고민과 해소 경험들
- 7. 만드는데 좋아서 시작한 개발**
 - a. (정현경 - OGQ)
 - b. 만들기를 좋아했던 일반 사람이 개발을 접하고 배우고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
- 8. 개발자로서 시야 넓히기 (aka. 슬럼프 극복기)**
 - a. (조은 - Naver)
 - b.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, 제가 선택한 커리어는 이미 죽어가는 시장이었고,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었지만 시장 전체가 죽어가는 와중에는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다.
 - c. 이런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슬럼프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 지에 대해 다룹니다
- 9.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소프트 스킬**
 - a. (최용호 - 넥슨 코리아)
 - b. 개발자로서 커리어 관리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스타트업을 거쳐 넥슨 코리아에 오기까지의 경험을 살려 공유하고자 합니다.

주최 : For.D

평소에 정말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주제여서 기대가 된다.

Session 1 : presentation

1. 새내기 개발자는 어떻게 직군과 회사를 정하고 성장했을까 ?

- a. 트리플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중 2년차
- b. 돈을 벌고 싶는데 뭘 하고싶은지 모르겠어요..
 - i. 어떻게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?
 - ii. 치킨vs떡볶이vs피자
 - iii. **경험을 통해 선택을 했다!**
- c. 어떻게 경험을 할까
 - i.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해본다.'
 - ii. 성향
 - 1. 성격이 급하고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, 프론트의 빠른 변화? 가 좋았다?
 - 2.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한다. 흥미와 배경지식을 키우자
 - iii. 업무 속에서 찾는다.
 - 1. 업무 속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
- d. 현실
 - i. 갖고 있는것이 없더라..
 - ii.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
 - 1. 1일 1커밋ㅋㅋㅋ
 - 2. 개발 블로그
 - a. 나의 활동
 - b. 나의 계획 등등
 - 3. 커뮤니티
 - a. 스택오버플로우, 페이스북, 슬랙...
 - 4. 회사
 - a. 기준과 가중치 등등
 - i. 배울곳이 많은 곳
 - ii. 사수가 있는 곳
 - iii. 연봉은 최저시급 이상만..
 - iv. 집에서 1시간 반 이내가 마지노선이다..
 - v. 야근은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..
- e. 쉬어갈 수 있는 수단을 꼭 찾아라

2. Infra Engineer에서 Frontend Engineer가 되기까지

- a. ODK Media
- b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(프론트엔드)
- c. SK infra
 - i. 고통스러운 경험
 - ii. 정말 하고싶었던 소프트웨어를 못함
 - iii. 이직
- d. 왜 프론트 엔드?
 - i. 익숙한 환경
 - ii. 흥미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
 - iii. 유비쿼터스 플랫폼
 - iv. 변화무쌍한 것
 - v.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.
- e. 15개월 간 퇴근후 조금씩 공부함
 - i. html, css, js es6 ~~~~

- f. 느낀 문제점
 - i.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
 - ii. 이들의 중요성?도 잘 모르겠다
- g. 좋은 방법
 - i.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..
 - ii. 북미 취업 준비
 - 1. Indeed
 - 2. Glassdoor
 - 3. Linkedin
 - iii.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아주 많이 보더라
 - iv. 세계적인 테크 회사들이 어떠한 엔지니어를 원하는 지 알게 되었다.
- h. 발견
 - i.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
 - 1. stack overflow, medium, quora~~
 - 2. udemy ~~
 - 3.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많아짐
 - ii. 독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
 - 1. 편향되지 않은 독서의 양이 곧 건강한 배경지식
 - 2. 사고과정이 병행되는 독서는 사고의 틀을 유연하게
 - 3. 자신의 메타인지 영역도 학습 및 성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.
 - 4. 이를 커리어를 개발시키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.
 - 5.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독서를 활용해야 한다
 - iii. GDG, NOMAD CODERS
 - 1.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다
 - 2. 검색으로는 할 수 없는 ~
- i. 블로그
 - i. 생각의 궤적을 남길 수 있다
 - ii. 글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
 - 1.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
 - 2. 글을 쓰면서도 생각이 정리된다
 - iii.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.
 - iv. 이력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

3.나의 공부와 수집과 목표

- a. Naver 재직
- b.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?
- c. 발표자 : 시간이 많이 남음
- d. 무조건 자료를 많이 모은다.
- e. 자료 -> 데이터 -> 정보
 - i. 특히 자료 -> 데이터 과정을 반복 학습으로 정보 취득
- f. 삽질/실패로 경험을 쌓기
- g. 찾기/보관에 포커스
- h. -> 회사를 다니다가 일이 많아짐 -> 잉여 시간이 없음
- i. 새로운 도전
 - i. 발표, 이직, 이상한 모임, GDG
- j. 읽기 번역으로 성장
 - i. 타인의 지식을 내 창고에 담기
- k. 공부.. 공부.. 공부..
 - i. 출퇴근 시간, 퇴근 후, 시간이 남을 때 마다, 화장실에서도..
- l. 2019년 NEW 목표는?
 - i. Android GDE, 발표, 글 많이쓰기, 책쓰기, 멘토멘티, 영어
- m. => 이렇게 하지 마세요, 셀프 고통으로 성장하는 타입(불나방)

n.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. 자신만의 길이 필요하다. 성장을 위해 목표를 향해

4. 질문덕후 생존기

- a. 18~46세의 미국인은 보통 11개의 직업을 거쳤다
- b. 모르는 것을 물어보라
- c.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모른다는 것?
 - i. 코드
 - 1.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치 않다.
 - 2.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다.
 - 3. => 코드를 자주 보면 된다.
 - ii. 문제 해결법
 - 1. 검색 키워드를 모른다.
 - 2. => 시간이 해결해줄 것, 구글에 다있다.
- d. 질문하는 방법
 - i. Stack overflow
 - 1. 질문의 맥락이 있어야 한다.
 - 2. 답변자가
 - a. 접근방법을 알려준다
 - b. 코드를 알려준다
- e. 질문할 때 어려운 점
 - i. 완벽주의
 - 1.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꺼려한다.
 - 2. 요즘은 모두 험업을 한다
 - 3.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.
 - ii. 소심
 - 1.
 - iii. 자주 물어보자!
- f. 공유를 할수록 성과가 좋아진다
- g. 첫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. 그리고 가볍게 공유함

5. 늦깎이 개발자, 실전 프로젝트로 성장하다.

- a.뱅크샐러드 안드로이드 개발자
- b. GDE Android Korea
- c. 전 리멤버 안드로이드 개발자
- d. 전과를 하다
 - i. 2008 한동대 기계 공학인증
 - 1. 취업이 잘된대
 - 2. 공학인증 : 삼성이 가산점도 준대
 - 3. 코딩은 못했다
 - 4. 그런데 C언어가 너무 재밌다.
 - ii. 컴공과
 - 1. 좋아하는거 선택해야 잘된다.
- e. 안드로이드를 만나다
 - i. 보안 동아리 선배들이 학교 공식어플 개발
 - ii. 전교생이 그걸 사용
 - iii. 근데 후계자가 필요함, 유지보수
 - iv. Java class도 몰랐는데 뽕세게 공부함
 - v. 선배 : 이거해!
 - 1.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음
 - vi. Developer Reference를 보고 많이 공부함
 - vii. 서버부터 프론트까지의 경험을 얻음
- f. 공모전에 실패하다

- i. 팀내 커플 결별 (1명잠수)
- ii. 멘탈 잡고 결과는 만들어냄
- iii. 팀 협업, 멘탈 개발이 아닌 경험을 많이 했음
- iv. 이 때 공부한 스프링 지식은 아직도 유용했다.
- g. 국가대표가 되다
 - i. 세계대회 도전(국가 대표를 뽑음)
 - ii. 멘토가 이렇게 할거면 집에가서 발씻고 자는게 더 도움될것이다. 듣고 대학교에서 살면서 배움
 - iii. 서비스 논리를 배움
 - iv. 성장을 확인
- h. 마무리
 - i. **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결과를 내세요!**
 - ii. 실패해도 되고 성취가 없어 보여도 뭔가를 배운다.

6. 아직도 나는 개발자가 맞는가?

- a. 부제 : 결국엔 개발자
- b. 레이니스트 재직 뱅크샐러드 백엔드 개발자
- c. 수능 공부 지겨워 다른 재밌는 것은 없을까?
 - i. 누가 서울버스 뭐시기 어플 만들어서 돈 많이벌었다~ 나도하고싶다~
- d. 개발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?
 - i. 지식인 -> C언어부터 공부하라
 - ii. C언어 책은 라면발이가 됐다.
 - 1. 공부라고 느껴서
 - 2. 배워서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서
 - 3. 흥미를 못느껴서
 - 4. 남들과 같은 커리큘럼인게 싫어서
 - iii. 전과 시도
 - 1. 실패
 - iv. 언어를 찾음
 - 1. 관심이 간다.
 - 2. 대세가 될것 같다
 - 3. 교수님이 추천한 거
 - 4. 파이썬, 하스켈
 - 5. 장고, 라즈베리 파이, 데이터분석, 함수형 프로그래밍
 - v. 관심이 가는 범위를 늘려봄
 - 1. 흥미가 생기는 것을 찾을 때 까지 노력
 - vi. 이제 시작하려는데 포기한다..(의지박약)
 - 1. 프로젝트 참여
 - 2. 인턴 할 수 있는 회사 찾아보기
 - a. RocketPunch
 - b. 근데 다 떨어짐
 - 3. 근로취시기? 성공
 - 4. 그다음 인턴 40개 다떨어짐
 - a. 남들과 같이 작성 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
 - b. 알고리즘 테스트 준비보다 프로젝트 위주의 경험이 많았다
 - i. 근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
 - 5. 코드와 기획서를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듦 -> 인턴지원 성공
 - vii.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
 - 1. 이것들을 다 학습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가?
 - a. NO!
 - 2. 작은 피쳐 단위 구현 -> 적용된 기술을 Digging -> 코드 리뷰 -> 작은 피쳐 단위 구현-> (사이클) -> 배포

- 3. Stack overflow ~~~
- 4. 빠른 피드백과 빠른 리뷰가 중요
- viii. 목표를 잡았다
 - 1. 협업이 잘되는 개발자
 - 2. 고객 관점/ 가치 향상시키기
- ix.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협업을 어떻게 잘 할까 동료들로부터 피드백~~

7. 만드는게 좋아서 시작한 개발

- a. 안드로이드 개발 4년차
- b.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개발을 알게 됨
 - i. 만드는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게다가 돈이 된다.
 - ii. 바로 진로 결정
 - iii. 1-2년차 -> 재밌다
 - iv. 3,4년차 -> 뭔가 힘들다
 - 1. 만드는게 다가 아니더라..
 - 2.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..
 - 3.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..
 - v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느낌 그대로
 - 1. 만드는게 좋다

8. 개발자로서 시야 넓히기 (aka. 슬럼프 극복기)

- a. 네이버 프론트 엔지니어
- b. google developers experts ~~~
- c. AMP 오픈소스 멤버
- d. UI/UX Developer?
 - i. 많이 죽어있었다..
- e. 고졸, 연봉도 낮고..
- f. 슬럼프
- g. [내가 모르는 기술들](#)
- h.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!
- i. 커뮤니티 가입
 - i. GDG 가입
 - ii. 다른 개발자들과 많이 만났음
 - iii.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많다.
 - iv. GDE에 가입
- j. 영어를 못해요..
 - i. 근데 면접을 봐야한다.
 - ii. 하루 4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다.
 - 1. 4일동안 계속 영어공부 해서 합격
 - iii.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.
 - iv. 정보가 영어가 54퍼센트 한국어가 0.9퍼센트
- k. 기회는 늘 온다. 그것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다.
- l. 슬럼프 극복
 - i.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라
 - ii. 뭐든 해봐라
 - iii. 영어를 공부해라

9.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소프트 스킬

- a. 넥슨
- b. 코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신경써야 한다
 - i. 건강, 대화~~

- c. 메타 인지
 - i. 나에 대해 잘 아는 것
- d. 자투리 시간 활용
 - i. 출퇴근 길 자기계발
 - 1. 경우에 따라 서서가거나 앉아서 가거나
 - 2. 서서갈 때는 유튜브로 강연 영상 듣기
 - 3. 앉아서 갈 때는 강의 보거나 책 보기
 - 4. 걸어서 이동중에는 유튜브 강연 듣기(유튜브 프리미엄)
 - 5.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트렌드 읽기
 - a. 기술적인 그룹이 굉장히 많음
 - b. 자기혼자 보려고 트위터에 막 올려놓음
 - ii. **스페셜리스트 vs 제너럴리스트**
 - 1. 발표자는 제너럴 리스트를 선호 (나도그렇다..)
 - a. 여러가지 하는것을 좋아함
 - b. 하나만 오래 보면 금방 질림
 - 2. 현재 진행중인 공부
 - a. 백엔드 개발을 위해 Go 언어를 공부
 - b. 프론트 view.js 공부
 - c. 그룹 스터디
 - iii. **지속적인 작은 성공**
 - 1. 작은 목표
 - 2.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한다.
 - a. 발표하는것도 작은 성공이다
 - b. 업무도 이런식으로 함
 - iv. 개발 노트
 - 1. 적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무언가를 적는다
 - a. markdown mindmap
 - b. github : 정제되지 않은 자료들을 막 올려놓음
 - c. blog : github 글을 정제해서 올려놓음
 - d. notion : ~
 - 2. 이것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됨
 - 3. 반복되는 문제를 다시 빠르게 해결함
 - 4. 글을 쓰다보면 머릿속에 정리
 - 5. Github 활성화됨
 - v.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 커뮤니티!
 - 1.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싶은 것
 - 2. 구글 스터디 잼
 - 3. 자바 카페
 - a. 스터디 많이함
 - b. 정기 세미나, 강의 발표
 - c. 책 번역 + 출간
 - 4. AWSKRUG
 - a. AWS Summit 발표도 함
 - 5. DDD
 - a. Design Developer D~~
 - b. 팀 프로젝트
 - c. 해커톤
 - d. google cloud summit
 - 6.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옴!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
 - vi. 건강
 - 1. 목, 허리 건강
 - 2. 스트레칭

- 3. 운동
- vii. 휴식
 - 1. 다른 것은 신경쓰지 말고 놀아라
 - 2. 게임, 여행, 카페
- viii. 컨퍼런스
- ix. Linkedin
 - 1. 채용의 기회
 - 2. 경력 나열, 발표한 것 정리, 책쓴것도 정리
 - 3. 이것을 통해 넥슨에 입사하게 됨
 - 4. AWS는 최종면접에서 떨어짐
 - 5. Microsoft는 면접있었는데 넥슨불어서 안감
- x. 나에게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자
 - 1. 너 왜케 이것저것 다 파냐! -> 신경쓰지 않는다

공통점 : 커뮤니티에 가입해라, 블로그를 해라, 프로젝트를 시작해라

Session 2 : Networking